

편집자의 말

러시아 혁명 100주년을 맞는 해이다. 이 해를 맞이하는 러시아 사회의 반응은 한 가지로 정리할 수 없다. 혁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별로 달가워하지 않는 푸틴 대통령 정부 쪽의 태도, 공산주의가 악이었다고 여기며 이를 초래한 러시아 혁명도 별로 달가운 경험이 아니었다고 시큰둥해 하는 사회 일각의 반응, 러시아 혁명의 진정한 역사를 이제야말로 제대로 연구할 수 있다고 여기면서 부지런히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담론과 논의의 장을 확장해 가고 있는 학계의 분주한 모습, 이러한 것들을 모두 종합해도, 전체적으로 열광적인 분위기라고는 말하기 좀 어렵다. 그러나 이 속에는 끈덕지게 자기의 길을 찾아가는 러시아인들의 모습이 보인다. 사실 러시아는 소련 해체 후 오랜 침체 속에서 벗어나 국제 관계의 새로운 강자로 부상하던 중 2014년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관계에서 공공의 적인 양 여겨지게 되었다. 앵글로-아메리카 동맹의 주류사회는 거의 막무가내로 이 같은 혐오분위기를 형성해 갔다. 그런데, 그 같은 분위기를 주도해 왔던 미국의 최고 집권자가 러시아와의 일종의 공모 혐의 때문에 엄청난 궁지에 몰리고 있는 상황이 도래했다. 그가 받는 지탄의 뭉치 러시아에도 같은 정도로 향해지는 것은 결코 아니나 러시아 혐오 분위기는 적어도 일시적으로라도 강화될 수 있다. 우둔함과 교활함의 대결에서 경멸은 누구의 몫이 되는가? 역설이라면 역설이라고 할 수 있는데, 기성질서에 여러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 속에서 새로운 유라시아 질서가 싹틀 수밖에 없으리라고 예상된다. 주목거리가 아닐 수 없다. 러시아 역사와 문화, 정치와 사회에 대한 평가는 이러한 새로운 흐름을 고려하는 속에서 다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이번 『러시아연구』 제27권 제1호는 열세 편의 논문과 한 편의 서평논문, 그리고 한 편의 서평을 담아 상당히 두툼한 분량으로 만들어졌다. 한리 협력, 러시아 언어, 사상, 문학, 문학비평, 역사 오페라, 소수민족 문제, 소련군에 대한 한국 사회의 이미지, 중앙아시아의 생활이슬람, 러시아 속의 중국 노동력, 역사 성곽, 푸틴 대통령에 대한 평가 등등, 열다섯 편의 글 속에 담긴 유례없이 풍성한 내용은 러시아연구의 가능한 모든 주제들을 향해 뻗어나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번 호 첫 논문인 강윤희의 「러시아 지방정부와의 한국 KSP 사업: 성과와 한계, 그리고 발전을 위한 제언」은 한국 기획재정부가 러시아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한 글이다. 2013년부터 시작되어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는 이 사업은 한국의 발전경험을 토대로 협력대상국의 수요와 여건에 맞춰 정책연구, 자문, 연수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제도 구축과 역량 배양을 지원하는 지식집약적 경제협력 사업이다. 강윤희는 이 사업의 한국측 사업수행기관에 속한 연구자로서, 이 사업에서 양국 행위자의 속성과 목적, 능력을 각기 분석하고 있다. 한러 경제협력에 대해서는 말과 구상만 무성하다는 인상도 없지 않은데, 이 글은 구체적 경험을 분석하여 한러 경제 협력의 성과와 한계, 의의를 살펴보고 있다. 관련 정책입안자들이나 실무자들, 연구자들에게 좋은 참고가 될 문건이라고 생각한다.

인도유럽어의 관계구문은 한국어나 다른 아시아 언어처럼 이 요소를 가지지 않은 언어를 모어로 사용하는 사람들에게는 이해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아주 어려운 요소이다. 이 구문은 왜 생겨났고 어떻게 발전하여 현재와 같은 구조를 가지게 되었는지를 권경준은 「러시아어 상관관계구문의 통시적 발전과 변이형」에서 살펴보고 있다. 아울러, 제목에서 알 수 있듯 관계구문의 변이형들도 고찰된다. 상관관계구문은 문장의 첫머리로 전치된 의문대명사(또는 지시대명사)가 이끄는 관계절이 주절의 지시대명사(또는 인칭대명사)와 조응되어 통사적, 의미적으로 연결되는 구문을 가리킨다. 이 논문은 상관관계구문이 제한적 관계문의 발달과정에서 중간적 단계로 발달하였으며 이때 사용된 의문대명사(또는 지시대명사 **kʷi/kʷo-*)는 의문사나 관계사가 아니라 비한정대명사라는 주장에서 출발하여 러시아어 상관관계구문의 통시적 발달과정을 재구성한다. 그리고 그 변이형들도 고찰한다. 권경준은 고슬라브어 성경번역, 이파티야 연대기, 노브고로드 자작나무 문서 등에서 예문을 들고 힌두어, 그리스어, 라틴어 구문의 사례와도 비교하면서 입론하고 있다. 아직은 가설단계라고 하니 활발한 학술적 논쟁 속에서 후속연구를 통해 좋은 성과를 거두기 바란다.

오랫동안 당연하고 자명한 현상으로 여겨져 왔던 결혼과 가족, 출산은 근대시민사회에 이르러 치열한 철학적, 사회사상적 사유의 대상이 되었다. 결혼제도의 배후에서 작용하는 사회경제적, 종교적 기득권과 권력구조의 작용에 대해 분석이 가해졌고 성적 통제방식의 메카니즘과 위선적 성격에 대해서도 공격이 가해지기 시작했다. 19세기 전반부터 시작된 러시아 인텔리겐치야 사

이에서의 결혼과 가족, 개인의 관계에 대한 논의는 은세기에 이르러 더욱 심화되었다. 김민아의 논문 「러시아 은세기 결혼과 가족의 문제: 로자노프와 메레지콥스키의 논쟁을 중심으로」는 두 사상가의 치열한 지적 대결을 살펴보고 있다. 겉으로 보이는 사회적 평판을 별개로 하더라도 결혼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적 욕구와 개인적 애정인가 아니면 종교적, 도덕적 가치인가, 이 물음에 대한 답은 반드시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만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 자신의 실존을 걸고 이 절박한 문제를 논했던 로자노프와 좀더 관념적이고 사변적 성격이 강한 메레지콥스키는 동시대의 절친한 벗이면서도 이 물음에 각기 달리 답한다. 본인들이 기존 결혼제도의 틀과 관련하여 각기 개인적으로 너무나도 다른 경험을 가졌던 것이 각기 다른 접근법의 원인이라고만 말하면 너무 단순한 태도일 수도 있겠다. 『예브게니 오네긴』의 여주인공 타치아나에 대한 상반된 평가를 읽는 것은 이 논문의 독자들이 누릴 수 있는 쓸쓸한 재미 가운데 하나이다.

김혜진의 논문 「러시아연방 내 튀르크계 공화국의 민족어 교육: 발전과정 및 한계」는 러시아연방의 10개 튀르크계 민족공화국 가운데 불가-우랄 지역에 위치한 타타르스탄, 바시코르토스탄, 추바시, 세 공화국의 민족어 교육 상황을 비교하여 살펴본 글이다. 소련 해체 후 러시아연방 정부는 일시적으로 러시아연방 내 민족어의 발전을 지원하는 정책을 폈고 튀르크 민족들도 이에 크게 고무되었다. 그러나 1990년대를 거쳐 가면서 이 정책은 후퇴하였다. 이 글에 따르면 현재 튀르크계 민족어와 관련한 언어 상황은 민족어-러시아어, 두 개 언어의 실제적인 상용이 아닌, 동등하지 않은 두 개의 언어 병용에 불과한 상태이다. 김혜진은 그 원인을 짚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으로 민족어 교육을 위한 좀 더 집중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러시아연방이 국내외적으로 위상을 강화시켜가면서 연방 내 소수민족들의 민족어 발전을 오히려 제한하려 하는 것이 아닌지, 소수자들의 문화적 자율권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염려어린 관심을 보내고 있다.

이번 호에서 유일한 역사분야 논문인 류한수의 「제2차 세계대전의 “잊힌 전선”: 한국 사회와 학계의 독소전쟁 인식」은 편향된 역사적 인식이 어떻게 생겨나고 강화되는지에 대한 연구이다. 이 논문에 따르면 한국에서는 학술 문헌이나 대중출판물 혹은 역사교육을 위한 교재(중등교육용, 고등교육용)를 막론하고 독소전쟁과 관련하여 독일군의 능력을 과대평가하는 반면 소련군의 군사적 수행능력은 과소평가하는 경향을 보여 왔다. 그래서 독소전쟁에서 독일

이 패하고 소련이 승리했음에도 그 원인을 소련군의 장점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독일군의 뜻하지 않은 실수나, 군대와 무관한 히틀러의 무능에서 찾으며, 승리한 소련군에게는 오히려 잔혹하고 야만적인 집단이라는 이미지를 덮씌운다. 류한수는 이러한 현상의 원인으로서는 오랜 세월 한국사회에서 형성된 러시아혐오증 — 류한수 자신의 표현으로는 공포(恐露)증 — 과 반공주의에 바탕을 둔 반소감정, 친독일정서 등과 부실한 군사사 연구도 든다. 편견은 오래 지속되고, 많은 경우 근거가 희박하기 때문에 편견이다. 독소전쟁에서의 독일군과 소련군의 역할에 대한 인식이 서방에서는 바뀌어 가고 있다고 한다. 한국에서 기존의 인식을 바꾸는 것은 한국연구자들, 역사교육 담당자들의 역할이다. 류한수의 글이 이를 위한 촉매역할을 하게 되기를 기대한다.

박혜경은 「혁명의 서사시: 『고요한 돈강』과 『의사 지바고』의 장르 비교」에서 올해가 러시아 혁명 100주년이 되는 해라는 것을 기억하는 사람이라면 자연스럽고 떠올리게 될 두 편의 문학작품을 비교분석의 대상으로 삼았다. 『고요한 돈 강』과 『의사 지바고』는 혁명과 내전이라는 거대한 격동 속에서의 인간의 삶을 다룬 서사시로 간주된다. 그런데 박혜경이 보기에 두 서사시의 중심인물 그리고리 멜레호프와 유리 지바고는 사회적 격랑 속에서 각기 다른 운명을 가진다. 그리고리 멜레호프는 역사적 변혁의 과정에 참여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과 유기적 관계를 가지면서 카자크 농민이라는 집단적 인간에서 자신만의 가치관을 가진 개성 있는 인간으로 성장해 간다. 즉 인격적 변화를 이룬다. 이에 반해 유리 지바고는 처음부터 일관된 자기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며 온갖 격동과 사회적 혼란과 변화 속에서도 그의 관념과 사상은 변하지 않는다. 그는 다만 예술가로서 자신을 세울 뿐이다. 작품 속에서 그려진 혁명 상황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이 속에 그려진 인간의 삶에 대한 태도, 사회 속에서의 인간의 성장과 변화라는 모습이라는 면에서 확실히 두 작품은 아주 다른 세계관을 대표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독자들에게는 『의사 지바고』가 훨씬 잘 알려져 있지만 러시아 혁명과 내전이라는 격동 속에서 인간의 모습을 그야말로 서사시적 웅장함 속에서 더 생생하게 그려낸 작품은 어느 작품일지, 박혜경의 글은 차분한 작품 분석을 통해 다시 생각해 볼 수 있게 해 준다.

2017년 4월, 한국 국립오페라단은 무소르그스키의 오페라 「보리스 고두노프」를 처음으로 자체 제작하여 공연했다. 압도적인 무대구성과 개성적인 연출로 많은 화제를 불러일으킨, 한국 오페라 공연사에서 기념비적인 작품의 하나로 기억될 만한 공연이었다고 생각된다. 신영선은 바로 이 작품, 오페라 「보

리스 고두노프」의 리브레토를 푸시킨의 원작과 비교해서 세밀하게 비교한다. 오페라 대본의 집필자는 다름 아닌 작곡자 자신으로 여러 차례의 개작을 거쳤으므로 많은 판본이 있지만 리브레토는 기본적으로는 원작의 많은 부분을 축자적으로 따 왔다. 그럼에도 신영선은 오페라 대본과 원작 희곡에 차이가 있다고 보아, 등장인물의 비중, 그들의 배치와 역할 등등의 차이를 세밀하게 분석한다. 오페라와 연극이라는 장르의 근본적 차이에서 비롯되는 집중과 생략, 극적 효과 배치의 차이, 공연예술의 특성상 상업주의적 견지에서 요구되었던 여주인공의 비중 강화 등의 요인도 있겠지만 신영선의 견해로는 가장 중요한 차이는 민중의 재현 방식에 있다. 푸시킨의 희곡 「보리스 고두노프」는 민중과 권력의 관계라는 문제를 정면으로 다룬 작품이라고 평가받지만 신영선은 오페라 대본에 이르러 권력층과 보다 구체적인 갈등을 빚는 존재로서의 민중의 형상이 더욱 강화되는 것으로 파악한다. 다만 오페라 속 민중은 권력을 조롱하는 비판자라기보다 권력자들에게 휘둘리는 억압받고 불행한 존재로 그려지고 있다고 본다. 오페라 「보리스 고두노프」에 관심을 가진 연구자들이라면 관심 깊게 참고할 만한 연구라고 생각된다.

소위 서방의 많은 나라의 경우에도 그러하였지만 한국에서도 중앙아시아에 대한 연구는 소련 해체 후에 겨우 걸음마를 떼기 시작했고 한동안은 기본적인 사실관계들을 파악하는 수준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20년 이상의 연륜이 쌓이면서 이제 중앙아시아 연구도 각론으로 들어가 비교적 심도 깊은 논의들을 내놓고 있다. 그 가운데서도 이슬람에 대한 연구가 최근에 여러 연구자가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눈에 띈다. 러시아 문학연구에서 출발하여 유라시아 지역학 연구로 연구의 폭을 넓힌 오원교는 「현대 우즈베키스탄의 생활이슬람의 양상과 전망」에서 그러한 예를 보여준다. 그의 말을 빌면 중앙아시아 이슬람은 무슬림 대중의 삶 속의 토착적 이슬람, 즉 일상 속의 이슬람 덕분에 소련 지배기를 거치면서도 무슬림 정체성을 지킬 수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오랜 무신론 정권의 지배 아래서 공식이슬람, 저항이슬람, 생활이슬람으로 분열되었다. 우즈베키스탄의 경우, 2000년대에 들어서 이슬람은 정치적, 사회적 차원에서는 엄격히 제한되고 종교적, 문화적 차원에서만 선택적으로 허용되는 배제와 포용의 양면 정책이 운영되고 있다. 일반인들이 지켜온 생활이슬람은 우즈베키스탄에서도 소련 해체 후 부흥을 이루고 있는데, 이슬람 사원과 교육기관의 증가, 일반 무슬림들 사이에서의 5주(柱) 준수 움직임의 강화, 이슬람식 의례와 축제, 복장의 증가, 이슬람과 결부된 토착신앙의 부흥 등이 이를 말해

준다고 한다. 이슬람종교에 대한 부정적 편견이 강화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오원교의 논문처럼 이슬람의 다양한 양상을 학문적으로 연구하고 소개하는 것은 문명들 간의 상호 이해를 위한 디딤돌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러시아 안팎에서 안톤 체홉의 극작품은 변함없는 인기를 누리고 있다. 공연 작품목록에서뿐 아니라 비평, 평론, 연구의 대상으로서도 그렇다. 몇 년 전에 잇따라 찾아왔던 체홉 사망 100주년과 탄생 150주년은 어김없이 그의 작품을 상연하고 연구하는 기념의 해가 되곤 했는데, 사망 100주년을 조용하게 보냈던 톨스토이 연구자들이나 애호가들이 보면 상당한 비교가 될 정도이다. 젊은 러시아문학 연구자 윤서현은 그 중에서도 「갈매기」의 예술테마를 골똘히 들여다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새로운 형식의 주창자인 신진작가 트레플레프와 성공한 중견작가 트리고린의 대립관계 속에서 이를 분석한다. 예술작품에서 ‘살아있는 인물들’을 배제하고 시로서의 희곡을 썼던 트레플레프와 주변 사람들을 일일이 취재하며 이들의 모습을 작품 속에 담아냈던 트리고린, 이 두 예술가의 대립을 둘러싼 체홉과 주변 예술가, 비평가들의 논의 및 논란이 논문 속에 정리되어 있다. 윤서현은 「갈매기」에는 이 두 작가처럼 예술을 창조하는 사람들 뿐 아니라 마샤나 니나처럼 스스로 예술작품이 되고자 하고, 자신의 삶을 예술의 소재로 제공하기를 열망했던 인물들도 등장한다고 본다. 예술을 창작했던, 예술로서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빚어내는 긴장어린 대결들이 매혹적인 비극으로 귀결되는 과정이 글 속에서 분석된다.

서구어에서 재귀동사가 어떻게 생겨났고 어떠한 성격을 가지는지는 어학연구자들에게만 흥미로운 주제는 아닐 것이다. 이기웅의 「러시아어 재귀 동사의 논항 구조」는 러시아어 재귀동사의 성격에 대한 기존의 논의들, 재귀동사의 다양한 용법, 용례를 소개한다. 이기웅은 재귀동사의 용법에는 수동, 상호적 과정, 수혜적 과정, 자신에게 향해지는 과정, 감정적 과정, 물리적 상태변화 등등이 있음을 소개하면서, 재귀 동사의 다양한 통사-의미적 가능성 또한 개별 동사의 어휘적 특징에 따라서,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구현하는 논항 구조의 문맥적 한정에 따라서 복잡한 양상을 보인다고 지적한다. 그는 전체적으로 보면 러시아어 재귀 동사의 일반적 기능은 논항 구조를 축소화하여 비인칭화, 탈타동화하는 것이라고 본다. 또한 의미상으로는 러시아어 재귀 동사의 일반적 기능은 동사로 지칭되는 과정을 참여자의 의지와 상관없이 전개되는 것으로, 그리고 참여자의 의지로부터 나오는 과정은 다른 참여자를 직접적인 피행위자로 겨냥하지 않는 양태로 펼쳐지는 것으로 나타내는 데 있다고 본다. 이

글이 재귀동사의 본질과 용법에 대한 이해를 돕는 데 기여하기를 희망한다.

다른 정신적, 지적 활동이나 마찬가지로 문학평론, 비평이라고 러시아 혁명이라는 엄청난 과정의 파장을 비껴갈 수는 결코 없었다. 아니, 문학비평이야말로 혁명과정에서 만들어놓은 새로운 담론 투쟁 과정에서 최전선을 담당하는 정신활동의 하나였을 것이다. 이병훈의 「러시아 혁명과 문학비평의 두 방향: 1920년대 소비에트 비평의 근본문제들」속으로 들어가면 그 속사정을 좀 더 차근차근 살펴볼 수 있다. 이병훈은 1917년 혁명 후 ‘새로운 문화예술의 본질과 특징은 무엇인가?’라는 물음을 둘러싸고 전개된 소비에트 문학비평 논쟁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 두 가지를 살핀다. 그 첫째는 프롤레타리아 문학의 독자성 논쟁이고, 둘째는 동반자작가 논쟁이다. 보그다노프와 보론스키가 이들 논쟁의 대표논객이었다. ‘레닌의 라이벌’이었으며 혁명 후 ‘프롤레트쿨트’ 운동의 지도자였던 알렉산드르 보그다노프는 혁명기 문학의 사회적 역할을 강조하면서 프롤레타리아 문학의 독자성을 주장했다. 그 반면에 보론스키는 이른바 ‘동반자문학’에 대해 상대적으로 우호적이었다. “예술은 계급 이데올로기의 하나이며, 계급의식을 구성하는 하나의 요소”라고 규정하면서 “프롤레타리아 예술은 현실을 변화시키고, 사상의 체계를 제공하며 의지를 조직”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주장한 보그다노프에 반해 “예술은 삶의 인식”이라고 보았던 보론스키는 비프롤레타리아적인 혁명 이전 시기의 뛰어난 예술의 가치도 충분히 인정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과거 예술과 혁명 후 시기 예술 사이의 ‘미학적 교각’을 놓는데 있어서 동시대의 동반자작가들에게 큰 빛을 지고 있다”고 인정하기도 하였다. 이 논쟁에서 1925년 보론스키는 보그다노프에게 승리를 거둔 것처럼 보였고 풍부한 재능을 가진 동반자 작가들의 작품활동을 인정하면서 소비에트 비평은 황금기를 맞았으나 1930년대 초 스탈린주의 문학정책이 확립되면서 문학은 사회주의 이데올로기에 종속되게 된다. 이병훈의 글은 러시아 혁명 후 모든 분야에서 1920년대의 유연한 정책이 1930년대 초에 경직적 관료주의의 텃 속으로 빠져들게 되었으며 문학과 문학비평도 예외가 아니었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다. 도대체 어찌하여 이 같은 경직화로 치닫게 되었는지를 설명하는 것은 스탈린 체제의 성격과 본질에 대한 또 한 번의 논의를 요구하는 것이리라.

정세진은 「북카프카스 소수민족의 ‘피의 복수’: 용서와 화해의 변증적 방식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글에서 ‘피의 복수(кровная месть)’ 개념의 의미를 추적하고 있다. ‘피의 복수’란 피해자의 가장 가까운 친족이 살인자를 직접 응징하는 관습을 의미하는데, 정세진은 ‘피의 복수’는 혈족복수와는 다른 개

념이며 이슬람권에 특유한 관습이라고 보면서 북카프카즈 여러 민족들 사이에서 행해지는 ‘피의 복수’의 다양한 양상을 소개한다. 사실 이 관행은 국가의 공적 형벌체계가 확립되지 않거나 충분한 정도로 보급되지 않은 사회에서는 근친복수의 형태로 상당히 널리 행해져 왔으며, 근친복수가 인명배상금 지불로 대체되는 현상도 여러 사회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근친복수 현상은 기독교 성경을 비롯하여 『살리 법전』과 같은 옛 게르만 관습법전, 동슬라브인들의 초기법전인 『루스 법전』(『루스카야 프라브다』와 『야로슬라브 아들들의 법전』)에도 기록되어 있고 사회에 따라서는 자기방어수단으로 인정받는 경우도 있었으므로 이를 이슬람적인 관습이라고만 볼 수는 없다. 다만 이 글에 따르면 북카프카스 민족에게 ‘피의 복수’는 단지 복수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와 화해의 의미도 내포하고 있다. 그래서 북카프카스 민족들 사이에서는 살인자를 가족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는 관습도 있다. 배상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용서가 이루어지기도 한다는 점에서 확실히 북카프카스 일부 민족들 사이에서 이 개념은 특수한 양상을 띠기도 한다. 그리고 전근대적 현상인 ‘피의 복수’가 오늘날까지 행해지고 있다는 사실은 국가권력 수립 이후에도 작용하고 있는 “비동시적인 것의 동시적 공존”의 사례로서 관심을 끌만하다고 생각된다. 이 글에서 ‘피의 복수’와 혈족복수의 개념이 다르다고 말하기는 하면서도 그 차이가 선명하게 설명되지는 않은 점은 아쉽다. 후속작업을 기대한다.

시베리아-극동 지방의 인구부족을 메울 인력으로 중국인들이 러시아 국경을 넘어 들어와서 노동력으로 일하는 현상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 같은 현상은 역사적으로 이른바 ‘황화(黃禍)’에 대한 두려움을 일부 러시아인들 사이에서 불러 일으켜 인종주의적 담론의 소재가 되기도 했다. 정재원의 「러시아 극동 지방으로의 중국인 이주: 역사와 현황」은 멀리는 17세기 이전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중국인의 러시아 이주의 역사를 살피고 사회주의 소련 시기의 중국인 노동력 이용의 변화에 이어 오늘날의 현황을 살핀다. 소련 해체 후 러시아령 극동 지방의 중국인 이주 노동자의 수는 정확히 파악되지는 않고 있지만 소련 해체 이전에 비해 급증한 것은 분명하고 또 이들 중국인 노동력은 대개 도시에 집중되어 있다고 한다. 정재원은 중국인 노동력 이주의 성격을 세계체제론을 원용하여 설명하면서 이 현상은 자본주의 국가들 간의 이주의 형태를 띠고 있다고 파악한다. 이 글에 따르면 현재 러시아 내 중국인 이주자들은 러시아 내 소수민족 혹은 디아스포라 집단으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만들어 가는 단계에까지 이르렀다. 현재 러시아-중국 관계는 밀접한

정치경제적 협력의 토대 위에서 적어도 외적으로는 더할 나위 없는 우호친선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 만큼, 비대칭적인 인구적 요인이 이 친선관계에 앞으로 어떻게 작용하게 될지, 유라시아의 세력균형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지, 주목된다.

이번 호 서평논문으로는 김재윤의 「연해주 영동지역의 선사시대 및 중세시대 성곽에 대한 최신성과」를 게재하게 되었다. 이 글은 연해주 동해안 시호테알린 산맥의 영동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선사시대 및 중세시대 성곽에 대한 올라 디야코바(Ольга Васильевна Дьякова)의 연구서 『시호테알린의 군사적 축조물(Военное зодчество Сихотэ-Алиня)』(Москва: Восточная литература РАН, 2009)에 대한 비판적 검토이다. 이 책은 기원전 10세기 리도프카 문화의 토성부터 발해와 여진의 동하국(1217~1234)까지 다루고 있다. 디야코바는 고구려의 산성축조기법으로 쌓은 성곽이 시호테알린 산맥의 동쪽에도 산재함을 밝히고 있고 ‘발해’와 관련된 유적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김재윤은 이 때문에 한국 학계에서 이 연구성과를 주목해서 보아야 한다고 말한다. 그는 디야코바 저서의 여러 특징을 상론하면서, 이 책과 한국사의 관련에 대해 꼼꼼하게 짚고 있다. 그러면서도 고구려와 발해 역사만 밝히려고 하는 민족주의적 역사관을 넘어서서 그 지역의 전체적인 역사적 맥락을 파악할 필요성 또한 강조하고 있다. 김재윤은 “선사시대부터 전체적인 맥락에서 연구해야만 ‘광의(廣義)’의 한국사를 완성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한다. 외국학을 연구하는 데서 확보되는 넓은 시야, 균형잡힌 자세가 한국사의 발전을 위해서도 필수적으로 요청된다는 점을 이 서평논문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다. 동북아시아 지역의 고대사에 관심을 가진 연구자들을 위해 좋은 참고가 되는 글이라고 생각한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현재 세계에서 가장 집중적인 관심을 끄는 인물의 하나이다. 좀 특수하고 예외적인 상황 때문이기는 하지만 적어도 지금 현재로서는 그가 미국 대통령의 운명까지 좌우할 정도가 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럴 정도로 막강한 영향력을 가졌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언제까지 권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물음을 불러일으키기도 하는 인물이 푸틴이다. Fiona Hill and Clifford G. Gaddy, *Mr. Putin: Operative in the Kremlin*(Brookings Institution Press, 2013)과 스티븐 리 마이어스(Steven Lee Myers)의 『뉴 차르: 블라디미르 푸틴 평전』(이기동 옮김, 프리뷰, 2016), 이 두 권의 책에 대한 서평을 통해 이상준은 푸틴이 어떤 사람

인지 독자들에게 좀 더 가까이 알고자 한다. 푸틴의 알려지지 않은 일화에 대한 이 책들에서의 소개도 흥미롭지만, 서평자는 이를 넘어서서 서방의 학계나 언론이 푸틴에 대해 가하고 있는 상당히 혹독한 비판이 관련 타당한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데, 사실 이 문제야말로 치열한 논쟁의 대상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보편적 인권 기준으로 푸틴의 행보를 평가하는 것과는 별개로, 과연 서방의 다른 정치지도자들, 특히 그들의 대외정책도 동일한 척도에 의해 평가받는지를 꼼꼼이 따져 보아야 한다. 많은 경우에 이중 잣대가 적용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금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여하튼 서평자의 위와 같은 지적이야말로 전문가에게서 기대할 수 있는, 그리고 전문가가 마땅히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역할 가운데 하나일 것이다.

위에서 소개한 것처럼, 『러시아연구』 제27권 제1호는 양적으로 풍성할 뿐 아니라 질적으로도 수준 높은 글들을 게재하였다. 『러시아연구』는 러시아-유라시아 연구 분야에서 심도 깊은 연구를 이끌어가고자 노력한다. 연구자들과 독자들의 끊임없는 관심과 격려야말로 이 학술지의 지속적인 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자산이다. 감사드린다.

러시아 혁명 100주년이 되는 시기인 2017년 하반기에 출간될 『러시아연구』 제27권 제2호는 러시아혁명 기념특집호로 꾸며질 예정이다. 역사, 문학, 어학, 사회과학 분야를 망라하여 이 “세계를 뒤흔든 혁명”에 대한 새로운 사유와 면밀한 궁구의 결과물들을 담아내고자 한다. 많은 연구자들의 투고를 기대한다. 일반 논문도 물론 게재하니, 변함없이 투고하고 성원해 주시기 바란다.

2017. 5. 25. 편집위원장 한정숙